

盧 “국민들의 평가 작년 포기했다”

청와대 신년인사회서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잘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작년에 완전히 포기해 버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헌법기관장과 여야 지도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등 260여명을 초청, 신년인사회를 가진 자리에서 “사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날로 계속 떨어진다”며 “2006년에는 (지지도가) 올라갈 것인가 해에 기대해 봤는데 2006년에 별 불일 없었고, 올해도 크게 기대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실상의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소회를 피력하면서 잔여 임기동안 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노 대통령은 인사말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해 열심히 하고 싶다”며 민감한 레임덕(권력누



노무현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 의장의 덕담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라며 “그 전보다는 못하겠지만, 제가 가진 합법적 권력을 마지막까지 행사할 것이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87년 6월 항쟁 이후 20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밝히면서 중단 없는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더 빠른 개혁이 안돼서 답답한지, 개혁이 피로한 것인지, 민주주의를 했다는 사람이, 민주세력이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합법적 권력 마지막까지 행사”

도 있다”면서도 “저는 냉정하게 객관적 시각을 갖고 역사를 분석해 보면 지난 20년간 우리 역사는 엄청난 업적,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성과”라고 단언한 뒤 “결코 스스로를 자화할 것이 아니라, 들리는 소리가, 평가가 나쁘더라도 쉽게 굴복할 일 아니다. 역사는 역사”라고 힘주어 말했다.

동시에 노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의 경험에서 “개혁이 불변의 원칙”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결국은 개혁”이라며 “개혁 피로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참여정부는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으나 피해 갈 수 없다. 개혁 안 하고 앉아서 선진국 되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언론의 평가는 예상초기 기대한 바 없으니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다. 그러나 국민들 평가는 잘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작년에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2007년에는 (국민 평가를) 신경쓰지 않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내년 이맘 때가 되면 완전히 마무리해서 다음 정부에 좋은 보따리를 남겨주려 한다”며 “말하자면 돼지라도 삼이 통통하게 찜 건 강한 돼지를 남겨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임기 안에 한국 경제가 팽광, 아주 활력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할만한 마땅한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땅한 수단도 없는데 억지로 해서 한 결과가 결코 장기적으로 좋지도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장기적으로 봐서 결코 나쁘지 않은 경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 “자진 사퇴하라” 與 “색깔 공세말라”

이재정 통일 “北 빈곤에 南도 책임” 발언 공방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의 빈곤에 대해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발언과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의 북한 김정일 위원장 면담 주장 등으로 새해 벽두부터 정계가 들끓고 있다.

◇이 장관 발언 논란=이 장관은 지난 2일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 실험까지 간 여러 가지 배정을 받으면 빈곤 문제도 하나의 원인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장관의 이 발언은 북한의 ‘빈곤 문제’를 단순한 쌀·비료 지원 등과 달리 북한의 당면 문제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어서 대규모 대북 지원 구상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

장관을 ‘친북사대주의자’, ‘주사파’에 비유하면서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해임건의안 제출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공세는 참여정부가 대선을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평화무드’를 의도적으로 조성할 경우 자칫 한나라당에 유리한 지극의 대선판도가 일시에 뒤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현근 최고위원은 3일 최고·중진 연석회에서 “북한 신년사를 신주단지 모시듯 외우는 이 장관의 발언은 주사파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 현 좌파정권이 북한의 요구에 의해 간첩을 석방하고, 북한은 더 나아가 일부 중요 직책까지 요구하는 걸로 있는데 이 장관 역시 북에 의해 임명된 장관

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성토를 “구시대적인 색깔 공세로 이념대립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통일부 장관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 논란=한나라당 정현근 최고위원은 이날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모 인사가 지난해 북한 핵실험이 실시된 10월 이후 북한을 방문, 비밀리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창석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0월 이후 북한을 방문한 전직 통일부 장관은 박재규 경남대 총장 뿐인데 박 총장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김 위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박재규 전 장관도 이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무원연금 세갈래로 개혁

퇴직자 현행·재직자 보험료 ↑·신규자 국민과 비슷

박명재 행자 밝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3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퇴직자들은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재직자들은 연금보험료 부담률을 높이며,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조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연금개혁은 시대적 당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자신의

전날 발언으로 ‘개혁이 물건건간 것이 아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개혁의 의지가 후퇴했거나 물건건간 것은 아니다’면서 “개혁의 시기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원활한 성공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공감대는 물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연금문제는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교섭사항인 데다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가 출범한 만큼 조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는 못하더라도 충분한 이해와 설득,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공감대 형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노무현시대가 민주화 완성”

한나라 홍준표 의원

한때 한나라당의 ‘대어 저격수’로 유명했던 홍준표 의원이 3일 민주화가 참여정부에서 완성됐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세간에 많은 비판이 있지만 ‘노무현 시대’가 대한민국으로선 민주화 시대의 완성이라고 감히 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 시대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노무현 시대를 부정하지 말고 계승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남은 1년간 그의 시대가 역사에 긍정적으로 기록되도록 도와주고 다음 시대인 선진강국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올해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일하자”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립 교사 임용고시 특강

- 대 상 : 중등교사<전과목>해당됨
- 시험과목 : 면접, 수업실기, 교과교육론
- 시험실시 : 1월과 2월사이에 약(5~7회) 불수있음

전남고시학원 상담전화 ☎(062)222-5105, 017-631-4467 전남여고맞은편 (광주 동부경찰서 뒤)

사립교사가 될수있는 최고의 기회

- 서울 공평학원과 광주·전남고시학원 동시에 강의함
- 개강 1월 4일 오후2시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의 교수진, 알찬 교육, 최상의 시설]

| 재직자과정 | 교육 내용 | 개 강 |
|---------|---|-----------------------------|
| 공인중개사 | 부동산학개론, 민법및특별법, 부동산공법, 중개법령및실무,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 2007년 1월 3일 |
| 주택관리사 | 민법총칙, 시설개론, 회계원리, 주택관계법규, 주택관리실무 | |
| 정보화기초-1 | 윈도우, 인터넷, 문서편집활용 | |
| 정보화기초-2 |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 |
| 사무자동화 | 문서편집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취득자격증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007년 1월 중순 (19:00 ~ 21:00) |
| 정보통신설비 | 1. 디지털전자회로 2. 정보통신기기 3. 정보통신개론 4. 정보통신시스템 취득자격증 :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 |

■ 기타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 환급
- 수강절차

훈련 상담 ▶ 훈련수강신청서작성 ▶ 훈련기관에 제출 ▶ 수강

☎ 224-4560, 232-1088

2007 겨울방학

공무원 대특강

개강 1월 2일

2007년 4월 14일 국가직 시험 실시예상!

행정직 교정직 특채 800여명 모집

소방공무원, 사회복지직, 보호관찰직, 세무공무원, 교육행정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뒤 222-4560

공시생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한빛 - www.hanhitgcs.com

2007 국가직/지방직 대비 공무원

개강 1월 2일

복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 234-0234

AIRREX 에어릭스 플레이트 히터

소리없이 다가오는 훈훈함~ 전기히터의 명품 플레이트히터

AIRREX 에어릭스 원적외선 히터

로타리히터와 열풍기의 장점을 하나로 화력조절과 원거리 입체 난방까지

| 모델명 | 평 형 |
|----------------|---------|
| AH-71PS(3~5평) | |
| AH-730(6~7평) | |
| AH-100(10~20평) | |
| AH-250(15~25평) | |
| AH-790(22~24평) | |
| AH-300 | 25~35평형 |
| AH-600F | 35~45평형 |
| AH-800 | 45~55평형 |
| AH-800F | 50~60평형 |

무등산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2동 1069 (062)371-7095, 011-601-7701